더하고 덜어내고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올해 7월은 윤달이 있는 시기이다. 불교를 넘어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윤달은 매우 중요하다. 달을 중심으로 절기를 확인하여 농사를 지었기에, 양력과 절기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윤법(置閏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윤달'이다. 윤달은 원래 윤월(閏月)으로 불렸으나, 한글 표기와 합쳐져 지금처럼 '윤달'이라 불리고 있다.

윤달은 동양 천문학의 정수이며, 우리나라 민간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윤달을 공덕 쌓는 시기로 여겨왔다. 그래서 윤달이 되면 예수재(豫修齋)를 비롯해 수륙재(水陸齋) 등의 특별 법회를 열어 기도를 통해 공덕을 쌓고자 했고, 지금까지도 그 의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윤달의 '윤(閏)'이 지닌 '더하다, 보태다'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일 년이라는 기간 중에 본래라면 존재할 수 없는 마치 13월과 같은 잉여의 한 달 동안 추가로 공덕을 쌓아 금생과 내생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다.

윤달 법회 중 가장 대표적인 '예수재'는 '생전예수재'라고도 불리는데, 이 명칭으로 인해 때때로 불교의 면죄부와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재는 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수행과 공덕을 닦는[修] 법회[齋]이다. 이 법회를 통해 쌓은 공덕이 사후 윤회의 생이 정해질 때 사용되어 보다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이, 오직 극락왕생을 바라는 법회와 같이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재는 내생만이 아니라, 윤달에 수행을 더욱 쌓아 다음 달부터 다

윤달 예수재, 수륙재 등
수행 통한 변화 願 담겨
욕심 덜어내는 삶 살기를

시 이어지는 일상에서 보다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그리고 수륙재는 수륙대재라고도 하여, 물과 땅에 머물고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에게 공양을 주는 법회를 열어 그들을 천도하고 그 공덕이 회향되어 자신도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다. 앞의 예수재가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고자 한 것이라면, 수륙재는 다른 중생에게 공양을 주어 그 공덕을 회향으로 받고자 한 것이다. 두 법회 모두 공덕을 쌓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그 기도의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윤달에 수계식도 열리는데, 이는 불제자가 되어 불교를 수행하고자 하는 발원도 있지만, 사후에 불교적 구제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염원에서 수계를 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윤달에는 다양한 기도와 수행, 법회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금생의 자신이 많은 업을 짓고 여러 번뇌를 쌓았다는 것을 참회하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과 내생에 대한 발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윤달의 수행법을 이제는 보다 불교적으로 이끌어 갈 때이다. 불과 얼마 전에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를 주었고, 이상기후로 지금 이 순간도 무더위와 극한호우를 걱정하며 7월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한 재해이다. 공덕을 쌓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윤달의 기도를, '지금보다'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와 이웃, 인연된 모든 것들이 같이 행복하고 함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야 한다.

공덕을 더해 나은 삶을 바라기도 하지만, 욕심과 잘못을 덜어내어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덜 욕심내고 덜 편리하고 덜 사용하면 더 얻게 될 것이다. 일 년에 마치 선물과도 같이 더해진 이번 윤달에, 자신의 인연과 주변을 더 살펴보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한다면, 다름 아닌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고 나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AI시대, '화두'로 질문 차원 높여라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인공지능, 특히 챗지피티(ChatGPT)나 제미나이(Gemini)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의 발전은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방대한 정보를 즉각 제공하는 LLM의 강력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효율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질문'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창의성을 발휘할까? 나는 여기서 간화선의 화두에 내재한 질문 방식에 주목하고 싶다.

화두는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추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질문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같은 질문은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깊은 의심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열게 한다. 화두 참구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답을 통해 세계관과 자아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LLM은 인간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화두의 본질적인 질문 방식을 LLM에게 적용하면, LLM이 학습된 패턴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LLM을 우리가 원하는

챗지피티 등 LLM, 빠르게 발전
좋은 답변 위한 좋은 질문 필수
화두식 질문법으로 창의성 향상

사고의 확장이나 관점의 조율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LLM에게 던지는 화두식 질문은 어때야 할까? 첫째,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LLM이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놓기보다, 익숙한 사고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답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다각적인 관점과 심층적인 분석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LLM에게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극단적인 관점, 상반되는 관점, 또는 비주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만약 ~라면"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본질적인 질문으로의 회귀를 유도해야 한다. LLM이 개념의 본질을 파고들어, 그 개념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화두는 정해진 답이 없기에, 수행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과 이해 방식을 모색한다. LLM에게도 제한된 정보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서로 무관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발상을 도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화두의 질문법은 LLM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지적 탐구를 돕고 새로운 통찰을 끌어내는 진정한 지적 협력자로 활용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제 인간은 화두식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LLM의 답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社 說

조계종연구소, 불교와 사회 잇는 가교 되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으로 올해 4월 1일 공식 출범한 조계종연구소가 7월 9일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연구소가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실천 전략을 생산하는 '불교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내적으로는 공공성과 장기 전략 수립에 기초한 정책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지혜로 동시대의 핵심 과제를 통찰하고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의 기본적 역할은 출가·포교·교육·사찰 운영 등 종단 미래 전략의 연구·개발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총무원 산하에 연구소를 확대·설치한 것은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소에는 종단 정책을 넘어, 전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방식을 고민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되어 있다.

연구소가 출가 제도 개선, 신행문화 혁신, 사회참여 확대, 국제교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연구 성과물이 종단의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조계종연구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불교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종교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

자생적 불교문화 생태계 구축 필요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수록곡의 인기도 좋아 주인공인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와 대결 구도를 보이는 '사자 보이즈' 모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사자 보이즈'는 저승사자를 모티프로 한 캐릭터지만, 이 원형은 불교의 '명부사자(冥府使者)'다. 김용덕 한국민화센터 이사의 말을 빌리자면 명부사자는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하고 행정 서류 업무까지 도맡는 "지옥의 공무원 같은 존재"다. 살짝 귀엽기까지 한 명부사자가 검은 도포와 갓, 창백한 피부의 모습이 된 건 현대에 와서다.

이처럼 불교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이자 보고다. 문제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에 있다. 최근 창작 찬불동요·찬불가를 제작·보급해온 '좋은벗 풍경소리'가 회향 소식을 알렸다. 여러 부침에도 어린이불교학교 등에서 사용될 찬불가를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매년 2차례 풍경소리 음반을 발매해 왔다. 쉼없이 달려 온 풍경소리는 지난 6월, 60집 음반을 끝으로 멈춰섰다.

외부에서는 불교문화를 원형으로 한 굿즈와 콘텐츠들이 쏟아지지만, 불교계 내부는 유일의 찬불가 보급 단체가 문을 닫는 이 현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보기만 좋은 꽃일 뿐 정작 우리가 거둘 수 없는 열매가 없다면 불교계 문화콘텐츠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교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화이부실(華而不實)'의 우가 지속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대승종은 1988년 5월 28일, 도암선사께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근본교리로 창종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본 종단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대승보살행을 실천합니다.
종조는 태고 보우국사이며, 소의경전은 『법화경』 · 『금강경』 · 『아미타경』 ·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경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전국에 350여 사찰과 750여 명의 승려 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수행과 중생 교화에 뜻을 둔 신심 깊은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스님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대한불교대승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